

풍납토성 발굴조사 성과와 그 의의

윤근일*

-
- I. 풍납토성의 현상
 - II. 풍납토성 조사 현황 및 의의
 - III. 풍납토성의 성격 및 연대
-

I. 풍납토성의 현상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풍납토성(사적 제11호)은 서쪽으로 한강을 끼고 약간 동쪽으로 치우친 남북 장타원형을 띠고 있다. 즉 북벽과 남벽은 짧은 벽으로 직선에 가깝고, 동벽과 서벽은 단벽에서 둔각을 이루며 꺾이는데, 그중 동벽은 중앙부가 외만한 형태를 띠고 있다. 풍납토성은 현재 한강변에 연한 서벽을 제외하고 북벽과 동벽, 남벽 등이 남아 있다. 북벽 446미터 구간은 이미 복원·정비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동벽과 남벽은 국가에서 단계적으로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동남벽 일대 900여 미터 구간은 아직 매입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유지로서 경작에 의한 훼손 정도가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토지를 매입하여 추가 훼손을 막고 적절한 보존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편 풍납토성 외곽에는 성벽을 방어할 목적의 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특히 동남벽 외곽에는 최근까지도 개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해자가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따라서 향후 학술적인 발굴조사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 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

결론적으로 풍납토성은 현재 2.1km 정도가 남아 있는 것이고, 유실된 서벽을 포함한다면 전체 길이 3.5km에 달하는 거대한 성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97년 선문대학교 풍납토성 학술조사단(단장 : 이형구)에 의해 실시된 실측조사에 의하면 성벽의 너비는 30~40m 정도이고, 가장 넓은 곳은 70m에 이르며, 복원된 북벽의 높이는 11.1m, 미복원된 남쪽과 동쪽의 높이는 6.2m 내지 6.5m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

풍납토성의 입지를 보면 일반적인 한국의 고대 성곽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을 잘 살린 산성인 것에 반해 한강변의 충적대지상에 구축한 순수 평지토성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연유로 일부 국내학자들 사이에서는 풍납토성이 단순히 중국의 영향을 받은 외래계토성으로 간주되어 그들의 연구대상에서 제외하는 현상을 초래한 것을 생각된다.

II. 풍납토성 조사 현황 및 의의

풍납토성은 을축년(1925) 대홍수시 처동제초두, 과대금구 등 중요 유물이 출토되면서 일제시대부터 하남 위례성으로 비정되는 등 주목을 받아 왔다. 그러다가 1964년 서울대학교 김원용교수가 최초로 성내 유물포함층을 시굴조사하여 백제시대의 생활면 2개층과 풍납리식무문토기를 비롯한 기원 전후 ~ 5세기대의 유물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그 성격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풍납토성은 서울시의 대규모 성장 속에 급속한 개발의 일로를 치닫게 된다. 물론 일각에서는 개발로 인해 무참히 파괴되어 가는 풍납토성의 보존과 대책을 촉구하는 건의가 있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6년 풍납토성의 서남쪽 현대중앙병원 기숙사 신축부지에 대한 한양대학교 박물관(단장 : 김병모)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당초 풍납토성의 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해자는 확인되지 않았고, 백제시대의 토기편과 기와편 등이 출토되었다.

그러던 중 1997년 1월, 오늘의 풍납토성이 있게 한 일대 사건이 발생하였다. 풍납토성의 실측 조사를 실시하던 선문대학교 이형구교수가 풍납동 231-3번지 일대의 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백제토기 등 유물 다수가 출토되었다는 사실을 문화재관리국과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제보하여 즉각적인 현장 검증을 통해 긴급 발굴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현장 도착 당시 500여평에 대한 터파기공사가 이루어져 지표하 4m 정도까지 체토 완

료된 상태였고, 벽 단면상에는 지표하 2.5m 정도까지 기준 건축물(신우연립)의 기초부가 드러나 있으며, 그 밑으로 백제시대의 유물포함층이 1.5m 이상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2월말까지 터파기구간에 대한 수습조사를 실시하여 초기백제시대 집자리 3기와 토기가마 1기, 기타 수혈유구와 기원전후로 추정되는 3중의 환호유구를 확인하였다. 그중 5호 집자리는 장축 길이 10.7m, 단축 폭 7.3m의 대형으로 마치 철성분이 깔린 듯 단단하게 바닥을 다졌다. 특히 내부에는 암키와편 2점, 상부에서 수막새 2점이 출토됨으로 해서 일부나마 실제로 기와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터파기구간 남쪽과 동쪽으로 파괴가 이루어지지 않은 구간은 장마기간을 포함한 2차례 정도의 철수기간을 합하여 9월초까지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여기서도 집자리 8기와 수혈유구 30여기 등을 조사하였고, 환호유구가 남쪽으로 계속 연장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가운데 집자리 2호와 3호 등은 불에 탄 상태로 거의 완전하게 발굴되어 초기 백제시대의 주거상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이들 집자리는 돌출된 방향의 출입구가 부속된 길이 10m, 폭 7m가 넘는 규모에 북동쪽 벽에는 터널식의 부뚜막이 설치되어 있고, 특히 화재로 인해 폐기된 벽체 구조물과 가구 부재 등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또한 한 가정에서 사용하던 일체의 생활용기들이 그대로 출토되어 당시의 생활상을 추정하는 데 결정적인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주거지 외에도 거의 지상화된 정6각형 형태의 집자리들도 다수 확인되어 초기 백제시대 주거지의 기능 분화 및 변천 과정을 추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위 발굴조사와 함께 남쪽으로 길 하나를 사이에 둔 풍납동 제1지구 재건축조합 아파트 신축현장에서는 기존 건물의 철거와 폐기물 반출작업이 한창이었다. 이례적으로 풍납동 내부에서는 건설공사시 사전 조사를 필수화하도록 행정조치함으로써 제1지구 역시 발굴조사를 실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이 곳 외에도 재건축 신청이 잇따랐기 때문에 문화재관리국에서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서울대학교, 한신대학교 등이 주축이 된 '풍납지구 긴급발굴조사단'(단장 : 한병삼 제6분과 문화재위원장)을 구성하여 재개발에 대한 발굴조사를 담당케 하여야.

이렇게 해서 '97년 10월 착수하게된 풍납동 제1지구에서도 초기 백제시대 집자리 8기와 수혈유구, 3중의 환호유구 등이 확인됨으로 해서 앞서 신우지구와 동일한 성격임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제1지구의 경우는 지형상의 절대 레벨 자체가 신우지구보다 높아서 퇴적 상태는 다소 불량한 편이었다.

이상 풍납토성 내부에서 실시된 최초의 발굴조사에서는 기원 전후의 경질무문토기가

주로 출토되는 환호유구와 타날문토기를 위주로 하는 초기 백제시대 집자리 19기, 기타 토기산포유구 및 수혈유구 등 당시의 생활상을 밝혀줄 만한 중요한 자료들이 다량 확보되었다. 또한 당시 발굴조사를 계기로 개발 앞에 속수무책으로 파괴되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방치되다시피 한 풍납토성에서 초기 한성백제시대의 실체가 재차 확인되었고, 이를 통해 행정적으로나마 개발공사 이전에 문화재의 존재 유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게끔 조치되었다.

이러한 조치에 의해 같은 해 한신대학교에서는 삼화연립 재건축부지(시공 : 대동주택)를 발굴하여 溝狀유구 등에서 경질무문토기 환형 30여 점을 비롯한 다량의 유물을 출토하였다. 한편 서울대학교에서도 붕괴된 서벽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남양연립 부지(시공 : 신성건설)에 대하여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여기서는 홍수로 쓸려나간 깊은 퇴적층만이 확인되었다.

이렇듯 풍납토성 내부에서 복원사업계획에 의거 연구소로 하여금 학술 및 복원·정비의 기초자료를 획득, 활용코자 '99년 6월부터 발굴조사를 실시토록 하였다.

발굴조사 대상 구간은 현재 남아 있는 풍납토성 중 기 복원된 북동벽의 남단에서 아직 토지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동남벽의 북단에 이르기까지의 총 길이 700m에 달하는 동벽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북쪽의 약 300m 구간은 토지매입이 완료되었으나 조경수로 심어진 수목의 보상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사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번 발굴조사는 행정구역상으로 235번지~241번지에 이르는 동벽 약 400m구간에 한해 실시하였다.

발굴조사 대상구역은 착수 당시 전구간에 보호철책이 설치되어 외부와 분리, 과니되고 있었고, 관한구청인 송파구청에 의해 공공근로 정화사업이 진행중이어서 그나마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조사구역 동쪽은 개천을 복개한 왕복 2차선의 도로가 나 있었는데, 이 개천이 아마도 풍납토성 축조 당시 조성된 해자가 최근까지 그대로 이용되었던 증거로 보인다. 한편 성 내부로 연결되는 서쪽은 지난 '97년에 발굴조사가 완료되고 속개된 재건축 아파트의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었다.

발굴지점은 대상구역중 동—서 폭이 가장 넓고 보존상태가 양호한 지점으로 선정하였다. 성내부와의 연결 층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가급적 지난 '97년에 발굴조사한 바 있는 일명 신우지구(풍납현대 연합재건축조합)와 1지구(풍납 제1지구 재건축조합)에 연결되는 곳으로 선정해서 편의상 북쪽의 것을 A지점, 남쪽의 것을 B지점으로 정하고 동-서로 관통시켜 성벽을 절개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확인된 성벽의 축조 방법을 보면 우선 가장 하단에 뿔을 깔아 기초를 다시

고 하부 폭 7m, 높이 5m 정도의 사다리꼴 모양 중심토루를 쌓았다. 그리고나서 안쪽으로 사질토(Ⅱ토루)와 모래(Ⅲ토루), 점토다짐흙(Ⅳ토루)과 빨흙(Ⅴ토루)을 위주로한 판축토루를 비스듬하게 덧붙여 쌓았다. 그중 마지막 토루 상면에는 강돌을 한겹씩 깔아 3단으로 만들고, 그 안쪽으로는 활석을 1.5m 이상 쌓아 마무리하였다. 이러한 석렬 및 석축은 토사의 흘러내림과 안쪽으로 밀리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배수의 기능도 겸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실은 3단의 강돌렬 사이에 의도적으로 돌을 깔지 않고 배수홈을 낸 것으로 뒷받침된다.

한편 A지점의 경우에는 빨흙으로 이루어진 V토루에 나뭇잎이나 나뭇가지 등의 식물유기체를 얇게 깔 것이 10여겹 이상이 확인되는데, 빨흙에 10cm 정도 두께로 갖다 부은 후 식물유기체를 얇게 깔고, 다시 빨흙을 까는 과정을 10여 차례 이상 반복하여 토루를 쌓아 올린 것이다. 이러한 축조 방법은 김제 벽골제와 부여 나성 등에서도 확인된 바 있고, 일본의 水城을 비롯한 제방유적에서도 확인되어 고대 한국과 일본의 문화 전파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식물유기체 4—5겹에 한번씩 3단에 걸쳐 성벽의 횡방향으로 각재목을 놓고 수직목을 절구시켜 지탱한 구조물도 확인되었는데, 종간격 110cm 정도로 8렬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목재는 푸대의 판축틀과도 유사한 구조로 보이거나 현상태로서는 목심의 역할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B지점에서는 V토루 하단부 4단째의 석축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성벽의 종방향으로 따라 80cm 간격의 수직목이 확인되기도 하여 구획선임을 추정할 수 있다.

중심토루 외벽으로는 경사지게 떨어지는 자연층위에 판축법으로 토루를 쌓고, 내벽과 마찬가지로 상부에 활석 또는 강돌을 깔아 마무리하였다. 내벽과 외벽의 석렬은 중심토루로부터 거의 동일한 거리에 축조되어 있어 당시의 계획된 축성 의도를 볼 수 있다. 이상 확인된 규모만 보더라도 성벽의 폭이 약 40m, 높이 9m가 넘는 규모이고, 조사 구간이 협소하여 내외부로 확장하여 조사하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하부로 내려가면서 그 규모가 더 커질 것을 기대된다.

한편 출토유물은 성벽 하단부에서 출토된 고식의 심발형토기를 비롯하여 판축토 내부에서 출토된 경질무문토기, 타날문토기, 회(흑)색무문양토기, 그리고 토루 상단부와 퇴적토와의 경계에서 출토된 장란형토기, 동이편 등이 있다. 이상의 유물로 볼 때, 풍납토성은 늦어도 3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이미 축조가 완료되어 성으로서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Ⅲ. 풍납토성의 성격 및 연대

지금까지의 풍납동 내부 주거지 발굴과 성벽 발굴조사로부터 그 동안 막연히 백제 초기의 토성으로 알려져 왔던 풍납토성의 실체가 어느 정도 규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풍납토성 내부에서 발견된 초기백제시대의 집자리와 출토유물은 기원을 전후한 시기에 이미 풍납동에 상당한 규모의 집단이 존재하고 있었음으로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로 볼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집자리들의 평면형태와 규모로 볼 때, 여지껏 확인된 한강유역의 어떤 집자리들보다 발달된 형태와 큰 규모여서 거주민들이 상당히 높은 계급이었을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더욱이 여기서 출토된 기와편과 전돌, 초석 등은 그러한 사실을 방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중요성을 띤 풍납토성의 성격을 단정지을 만한 중요한 자료가 최근 추가로 발견되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99년부터 한신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당연립 재건축부지(시공 : 대동건설) 발굴조사에서 배수로로 둘러 싸인 폭 16m의 대허 건물지와 '大夫'명이 새겨진 토기편, 말뼈 등이 다량 출토된 제사유구 등이 발견됨으로 해서 풍납토성이 초기 한성백제의 왕성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발굴조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더 큰 성과들을 기대한다.

한편 풍납토성 자체에 대해서는 그 평면형태가 장타원형이면서 평지에 구축된 토성이라는 점과 성벽의 축조기법 상 중심토루를 중심으로 안팎에서 비스듬하게 판축토루를 덧붙여 나가는 방법 등은 신석기시대이래 전국시대 등에서 발달한 중국의 도성 축조기법에 비견할 만하다. 오히려 현재까지 확인된 규모에 있어서는 중국의 도성들보다 훨씬 더 큰 토성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성의 내벽과 외벽의 상부에 석렬을 쌓아 토루를 보강한 방법 등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확인되는 예이고, 성벽 내부에 식물유기체를 섞어 쌓는 방법은 지금까지 확인된 예 중 가장 이른 시기로 향후 고대 토성 축조기법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당시의 인구규모나 사회조직, 권력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늦어도 3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이미 이와 같은 거대한 규모의 토성이 축조 완료되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고대국가의 성립과 발전 연구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풍납토성의 축조연대를 뒷받침할만한 과학적인 자료들이 분석, 완료되었다. 본 연구소에서는 '97년 1월~1월에 걸쳐 발굴한 집자리와 '99년 발굴한 풍납토성 등

벽에서 수습한 목탄과 목재 9점의 방사성탄소연대측정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또한 현재 성벽에서 출토된 토기 3점의 열발광연대(TL)를 측정 중에 있으며 그 결과 또한 곧 발표될 예정이다.

[표 1] 풍납토성 시료 연대측정 결과

출 토 지	시료	방법	방사성탄소 연대(BP)	중심연대 (AD/BC)	보정연대 (AD/BC)
풍납 신우 집자리2호	목탄	C-14	2190±50	BC 199	BC 380~90 BC
풍납 신우 집자리3호	목탄	C-14	1980±50	AD 40	BC 70~140 AD
풍납 신우 집자리4호	목탄	C-14	1850±50	AD 160	AD 70~330 BC
풍납 1지구 집자리1호	목탄	C-14	2030±60	BC 14	BC 180~90 AD
풍납 1지구 집자리3호	목탄	C-14	2150±50	BC 184	BC 360~40 BC
풍납 1지구 집자리8호	목탄	C-14	2080±50	AD 60	BC 200~70 AD
풍납토성 B지점 내벽 탐색 Tr.1	목탄	C-14	1820±50	AD 231	AD 90~340 AD
풍납토성 A지점 내벽 V토루	목탄	C-14	2110±50	BC 109	BC 210~20 AD
풍납토성 B지점 내벽 4단석축 하부	목탄	C-14	2080±50	BC 58	BC 200~50 AD
풍납토성 B지점 내벽	토기	C-14	1892±60	AD 108	AD 46~170 AD

위 연대측정 결과로부터 대부분의 보정연대가 기원을 전후한 연대로 측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대를 실제 발굴조사 결과와 비교한다면 풍납토성 내부에는 기원전에 이미 사람들이 정착하였고, 특히 기원을 전후한 시기에 성벽을 축조하기 시작하여 늦어도 3세기 중반 이전에 모든 성벽의 축조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절대연대 자체를 바로 실제 고고학적 연대로 치환, 적용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10여점의 시료가 보여주는 연대의 폭이 약 5세기 걸치고 있어 문헌기록상의 한성백제의 존속 연대와도 거의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발굴조사의 결과와 유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다면 보다 정확한 풍납토성의 성격과 연대가 규명될 것으로 생각된다.